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 17세기 청교도 헨리 스쿠걸에게서 배운다 -

이성규¹⁾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역사상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탁월한 정의를 내렸던 청교도 헨리 스쿠걸(Henry Scougal, 1650-1678)의 견해는 아주 큰 영향을 끼쳐 왔다. 스쿠걸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경건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죽어 가고 있을 때 헨리 스쿠걸의 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의 영혼을 깨워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였다.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죠지 휘펠드(George Whitefield, 1714-1770) - 18세기 영적 대부흥의 선두주자 - 를 스쿠걸의 책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꼽았다. 휘펠드는 진지한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회심하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스쿠걸의 책을 읽고 자신이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선한 삶을 살거나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²⁾

휘펠드는 일기에서 스쿠걸의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스쿠걸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큰 고통 속에서 여러 날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다.³⁾

또한 스쿠걸의 책은 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와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들은 이 책을 통하여 신앙의 길을 안내 받게 되었다.⁴⁾

스쿠걸의 책은 메마른 심령을 가진 이들과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참된 신앙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였다.

그러하기에 스쿠걸의 책의 어떤 내용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지 살펴봄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날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세대 가운데 스쿠걸의 신앙에 대한 교훈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신앙의 확신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영적인 대각성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도구로 다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참된 신앙에 대한 오해

스쿠걸은 '참된 신앙의 특징과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신앙이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한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오해하여 '정통의 개념과 견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며, 절제된 식습관을 지키며,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교회와 골방에 자주 가며, 때때로 손을 내밀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신앙이 있는 것이며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경건을 얻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들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스쿠걸은 심지어 "열광적인 뜨거움과 희열이 넘치는 헌신"이 있고 "열렬히 기도하고, 천국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경건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⁵⁾

스쿠걸은 '참된 신앙'과 거기서 나오는 외적인 모습을 '경건' 이라고 말하며 참된 신앙에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들은 '경건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쿠걸은 경건과 참된 신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된 신앙에 대한 스쿠걸의 이러한 견해와 유사한 내용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의 『신앙과 정서』(The Religious Affection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각성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종교적인 체험들을 깊이 관찰하고는 종교적 체험들이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⁶⁾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체험을 중요시하여 그것을 자신의 회심과 중생의 증거로 제시하며 의지하지만 참된 신앙은 외적인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마귀도 은혜를 받은 듯한 착각을 주며 성경을 남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 시킬 수 있으므로 외적인 것으로 참된 신앙을 정의 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

참된 신앙: 생명

그러면 참된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스쿠걸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이란 앞서 그가 지적한 외적인 것들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영혼의 연합이며, 거룩한 성품, 곧 영혼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임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⁸⁾ 참된 신앙은 외적인 것으로 분별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날 때 진정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믿음을 떠나서는 체험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합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와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의 아래 두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한다.⁹⁾

원종천은 칼빈의 영성에 대하여 쓴 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있어서 믿음은 인간의 편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받고 그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의 의를 전가 받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¹⁰⁾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칭의와 성화를 맺게 된다고 한다. 즉,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할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존 오우언(John Owen, 1613-1683)은 ‘참된 믿음’은 ‘복음적인 거룩’을 산출한다고 말한다. 즉, 믿음이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오우언은 “참된 믿음은 신자의 영혼과 양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항하는 모든 싸움의 현장과 온갖 시련이나 유혹으로 연단 받는 모든 현장에서 격려와 위로”를 얻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행동에 거룩과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기질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게 한다고 말한다.¹¹⁾

이처럼 칼빈과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칭의와 성화를 이루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은 스쿠걸의 신앙에 대한 정의가 칼빈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청교도 주류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스쿠걸은 ‘참된 신앙’을 ‘생명’이라고 부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신앙이 “영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쿠걸은 신앙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열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잠시 열심을 내다가 사라지는 신앙적 열심은 목베임을 당한 몸의 격렬하면서도 경련하는 동작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참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거룩한 영혼은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원리에서 비롯되며, 비록 약해질 수는 있어도 소멸되지는 않는다.¹²⁾

그리고 신앙이 ‘생명’인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이 내적이며, 자유롭고, 스스로 움직이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은 누가 시켜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원리에 의해서 거룩한 일들에 강하게 집착하게 된다. 스쿠걸은 신앙이 가지는 내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루는 경건의 자발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과 선함에 대해 사랑을 품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자극하는 새로운 성품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거룩한 공의를 단지 진정시키기 위해, 또는 자신들의 떠들썩한 양심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세금을 내듯이 헌신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실천들은 거룩한 생명의 올바른 발산이며 거듭난 영혼의 당연한 활동이다.¹³⁾

스쿠걸은 경건이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에,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영적인 본능이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사랑을 행하게 하는 것이 된다.¹⁴⁾

또한 스쿠걸은 경건한 사람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사랑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어 내적인 열망을 가지고 경건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⁵⁾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가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어 경건을 행하는 동인이 되는 것이다. 스쿠걸은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가 사랑을 지시하라? 사랑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한층 강력한 율법이다.”¹⁶⁾라고 표현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동기가 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신자는 도덕법 준수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매우 기쁘게 도덕법을 준수한다고 가르친 청교도 주류의 생각과 동일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⁷⁾

이처럼 스쿠걸은 경건이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따라 나오는 것으로, 율법적으로 억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적인 열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산출하는 생명 현상으로 이해한다.

경건은 거룩한 생명

스쿠걸은 신앙이 외부적 동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복종과 다른 것임을 밝힌 후에 신앙을 ‘생명’ 또는 ‘생명의 원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생명의 특징이 ‘거룩한 생명’이라고 한다. 신앙이 거룩한 생명이라고 칭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원인자이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 속에 신앙이 생겨났으며, 인간의 영혼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신앙의 속성”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앙은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⁸⁾

스쿠걸은 영적 생명이 아닌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 생명의 성향들도 이성과 지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경건과 신앙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본다.¹⁹⁾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 생명은 동물적인 수준에서 무절제한 삶을 살게도 하고 이성의 도움으로 고차원적·영적인 것에 대한 애착에 이르게도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거룩한 생명을 가지게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적 생명은 그 본성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매우 영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도 있음을 성경도 말하고 있다.²⁰⁾

존 오우언(John Owen, 1616-1683)도 『그들은 왜 복음을 배반하는가?』(Apostasy from the Gospel)에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근거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도 복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좋게 여기지만 복음의 진리가 자기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실천을 강요하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적대감이 일어나 그것을 대항하게 된다고 말한다.²¹⁾

스쿠걸은 이러한 생명을 ‘자연적 생명’, 또는 ‘동물적 생명’이라고 하며, 이러한 동물적 생명이 이성의 도움으로 영적 생명이 가지는 것과 유사한 신앙적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즉 지혜와 이성의 도움으로 자연적 생명도 어느 정도 영적 반응과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동물적 생명의 원천은 ‘감각’이기에 이것은 ‘신앙’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게 한다. 한 사람 속에서 동물적 생명이 압도하게 되면 악하게 된다. 반대로 참된 신앙은 영적 성향으로 기울어진다.²²⁾

스쿠걸은 거룩한 생명의 뿌리를 ‘믿음’이라고 한다. 신앙은 ‘믿음’을 그 뿌리로 하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자비, 청결, 겸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믿음은 영혼 안에서 거룩한 진리들로 그 성품이 확장하며,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는 증보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화목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믿음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 이름에 의해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부른다.²³⁾

이러한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타락한 본성이 아닌 새로운 본성을 가지

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스쿠겔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을 향한 훌륭한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자질들은 “충명, 율법을 연구하는 것, 세상에 대한 경멸, 고난을 참아내는 것, 자비롭고 인자한 성품, 절제와 순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²⁴⁾ 스쿠겔은 이러한 것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영적인 생명의 뚜렷한 증거’라고 한다. 경건을 ‘행위의 종류’로 설명하지 않고 그 ‘내적인 생명에 의해서 변화된 성향’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쿠겔에 따르면, 영적 생명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다. 경건한 자는 끊임없이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자신의 감정과 육신의 소욕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하며, 세상을 경멸할 수 있는 위대한 정신과 걸치장과 허영을 초월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목상하고 세상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다.²⁵⁾ 스쿠겔의 이런 견해는 ‘지상의 삶에서 절제와 초연으로서의 경건’을 가르치는 칼빈의 경건 이해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²⁶⁾

또한 스쿠겔이 경건의 자질로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은 ‘영웅적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결연히 참아내는 것’이다. 의인의 존귀함은 이러한 영적인 자질들이 내적인 것으로 그치거나 개인적인 유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큰 용기를 가지게 한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행동이라도 담대하게 행하며, 아무리 건디기 어려운 고난도 결연하게 참아내고, 이 용기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²⁷⁾ 기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용기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축복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의인은 모든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다.

또한 스쿠겔은 용기와 자유를 연관 시킨다. 그는 용기에 대해 말하면서 ‘용기’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이나 욕망을 금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사람이 자신에게 해로운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나 금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가장 큰 증거이며, 용기를 가진 자 만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기에 경건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장 용기 있는 자이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²⁸⁾

스쿠겔은 경건과 참된 신앙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말하기를 참된 신앙은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영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며, 내적이고 자유로운 원리로 거룩한 일들에 강하게 집착하는 자발성을 가지므로 ‘생명’이라고 정의 한다. 또한 스쿠겔은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하게 하므로 ‘거룩한 생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거룩한 생명의 기원을 믿음에 두고 있는데 경건의 총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뿌리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자비’와 ‘청결’과 ‘겸손’이라는 네가지 갈래의 가치를 가진 나무로 비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참된 경건을 가진 이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고 영웅적인 담대함과 용기로 고난을 결연히 참아내며, 이 용기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게 된다고 말한다.

- 1) 양양중앙장로교회 목사
- 2) D. Martyn Lloyd-Jones,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서문강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125.
- 3) George Whitefield, 『조지 휘필드의 일기』, 엄경희 역 (서울: 지평서원, 2002), 49.
- 4) Arnold A. Dallimore, 『조지 휘필드』, 오현미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3), 19-23.
- 5) Scougal, Works, 2.
- 6) Jonathan Edwards, 『신앙과 정서』 서문강 역, (서울: 지평서원, 1993), 69-160.
- 7) Jonathan Edwards, 『신앙과 정서』, 93.
- 8) Scougal, Works, 3. 이것이 경건에 대한 스쿠걸의 정의 라고 할 수 있다.
- 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1.3.
- 10) 원종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 하나, 1996), 39-43.
- 11) John Owen,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이태복 역 (서울: 개혁된신앙사, 2002), 87-96..
- 12) Scougal, Works, 4.
- 13) Scougal, Works, 4.
- 14) Scougal, Works, 33. 요한일서 3:3절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 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 15) Scougal, Works, 5.
- 16) Scougal, Works, 5.
- 17) 청교도의 도덕법 준수에 관한 논의는 임원택, “17세기 영국 청교도의 도덕법 논쟁—반율법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省谷論叢』 35 (2004): 355-402 참조.
- 18) Scougal, Works, 7.
- 19) Scougal, Works, 10.
- 20) 히 6:4-6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 21) John Owen, 『왜 그들은 복음을 배반 하는가』, R. J. K. 로우 요약,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73.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기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우언은 이러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영적인 것을 체험한 것일 뿐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 22) Scougal, Works, 7-8.
- 23) Scougal, Works, 12.
- 24) Scougal, Works, 81.
- 25) Scougal, Works, 80-84.
- 26) 참고로, 칼빈의 경건 이해에 대해서는 임원택, “참 경건—요한 캘빈의 경건 이해,” 『두레사상』 2 (1995 여름): 104-128을 보라. 특히, ‘지상의 삶에서 절제와 초연으로서의 경건’에 대해서는 pp. 121-126을 보라.
- 27) Scougal, Works, 84.
- 28) Scougal, Works, 86.